

- 녹취록 -

프랑스 의정활동의 경험과 교훈

발표 : 미셸 바히에(Michel Barrier)

생마틴데백뜨명 부의장 공산주의자공화주의자광역도의원협회 대표

참관 : 리지안 알레자(Lysiane Alezard) CIDEFE교육총괄 일드프랑스의원

토론 : 이상훈 민주노동당 서울시당 부위원장

지영철 민주노동당 충남도당 정책국장

김장민 민주노동당 부설 새세상연구소 상임연구위원

사회 : 박미진 민주노동당 경기도당 전 사무처장 전 경기도의원

바히에 : 소개를 하기 전에 먼저 감사인사를 해야겠다. 반갑게 맞아줘서 정말 고맙고 나 역시 매우 반갑다. 나는 노르망디 항구도시 르아브르(Le Havre)에서 왔다. 1977년 르아브르시 시장(의회의장)을 시작으로 33년동안 의원활동을 했다. 유럽공산주의자의원모임(président d'europe communiste conseil municipal) 대표로서 1980년 대 좌파의 복잡한 상황을 바로 잡아야 하는 책임을 맡았었다. 30년 전에 나는 더 젊었다. (웃음) 31살부터 르아브르시를 대표해 생마틴데백뜨명(Département de Seine-Martime, 생마틴도)에서 의원으로 일했다. 그때 지방분권이 실현되기 전이라 모든 중요 결정을 국가가 담당했다. 당시 공산주의자의원그룹(le groupe communiste conseil général) 70여명중에 10명이 생마틴 의원이었다.

“의원들이 일상적인 삶속에서 주민들의 부름에 언제든 달려가고 만나기는 일이 점점 중요해지고 있다”

생마틴에서 2004년 우파들의 시대는 막을 내렸다. 그들은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것에서 점점 더 멀어지고 있었다. 간단한 예로 우파 의장(도지사)이 지출예산에 새로운 항공회사 창립을 포함시켰는데 그 때 무리한 것 때문에 아직도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 내가 부의장(부도지사)을 맡은 2004년부터 재정, 도로건설, 항구, 대중교통, 전기 등의 분야를 담당하고 있는데 여기서 대부분의 수익을 이루고 있다.

생마틴데백뜨명은 120만명의 인구를 가지고 있다. 르아브르, 후앙, 엘버프 등 해양도시를 관할하고 있는데 대부분 도시화가 많이 진행된 상태다. 전세계적으로 농업이 후퇴를 겪고 있긴 하지만 농업 역시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해양산업이 발달했고 화학, 석유, 자동차산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에너지를 만들기도 하고 수출도 한다. 두개의 원자력센터가 있는데 새로운 기술을 개발해서 전기를 만든다.

그러나 현재의 세계적 경제위기가 아니더라도 생마틴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어왔다. 특히 실업문제로 고심이다. 생마틴은 경제적, 지정학적으로 산업화된 곳인 반면 젊은이들의 교육측면에서는 뒤떨어진 편이다. 그래서 교육문제를 바로잡는 것을 중요한 목표로 삼고 있다. 보건의료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의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고백한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병원이 더 멀어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모든 단체장과 의원들이 해야 할 일이 점점 더 많아진다. 때문에 우리가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전문가가 되어야 한다. 의원들이 일상적인 삶속에서 주민들의 부름에 언제든 달려가고 만나기는 일이 점점 중요

해지고 있다.

“정치적 삶에 대한 본질적 질문은 주민과 의원간의 관계에 대해 던져지는 것”

모든 지방은 재정적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알레자한테 여러번 들었겠지만, 지방자치단체에 부여된 국가적인 지원이 점점 더 감소되면서 역할을 수행하는데 어려움이 늘고 있다. 더구나 어려운 사람들에게 세금이 많이 부과되고 있다. 사람들의 요구는 높아지는데 필요한 재정은 감소하는 상황이다. 이것은 정치적으로 중요한 주제다. 지방자치단체는 사람들의 요구를 충족시켜야 하며 이는 세금감면과 공공서비스를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가야한다.

우리는 가위로 자르는 것과 같은 현상에 놓여있다. 재정적인 가능성과 사람들의 가능성 사이를 절단시키는 현상에 놓여있는 것이다. 어떤 곡선이 있는데 사람들의 요구는 높아지고 그것을 충족시킬 수 있는 방법은 감소하고 있다. 결국 우리가 해야 할 일의 중심에는 사람들의 요구를 들어주기 위해 어떤 정치적 방향으로 발전을 할 것인가가 있다. 이런 주제 때문에 다가오는 몇달안에 여러가지 팽팽한 논쟁이 있을 것 같다. 알레자에게 들어서 알겠지만 이 논쟁속에 정치적 동맹에 관한 내용이 있다.

생마틴은 정치연합이나 정치동맹과 관련해 긴 투쟁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우리는 오랜기간 공산주의자가 아닌 의원들과도 열린 분위기속에서 함께 지역을 운영해왔다. 그러나 이와 관련해 오늘의 현실에서는 몇몇 친구들에게서 발전된 모습이 보이지 않아 서로 피곤함을 느끼고 있다. 이러한 방향을 공산주의자들이 기다린 것은 아니라고 본다. 우리의 토론은 두단계로 진행됐는데 공산주의지역량을 강화하는 문제와 시민주의자들을 견인하는 문제에서 많은 논쟁이 있었다. 공산주의자에게는 교양하고 조직하는 역할도 중요하며, 이는 민중의 기대에 얼마나 부응하는가로 나타난다고 본다. 앞으로 다가올 몇주안에 공산당 내부와 좌파 정당의 관계에 대한 정치적 논쟁이 예상된다.

우리는 왜 의원활동을 하는가. 의원으로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우리는 민중을 위한 프로그램을 만들고 실현해야 한다. 물론 정당과 지역주민 사이에서 의원으로서 가지게 되는 애로점이 있다. 무엇보다 의원으로서 민중에게 언제나 정직하고 충분한 정보를 잘 전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정치적 삶에 대한 본질적 질문은 주민과 의원간의 관계에 대해 던져지는 것이고, 그 속에서 답을 찾을 수 있다. 민중과 의원이 하나로 결합될 때만 매순간 진정한 정치의 구현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박미진 : 짧은 시간에 많은 부분을 함축해서 설명해주셨다. 감사의 박수를 보낸다. 앞서 들은 것을 감안해 질의응답과 토론을 해주면 되겠다. 먼저 이상훈 민주노동당 서울시당 부위원장의 질문이다.

“사회를 변화시키고 삶을 바꾸는 내용이 무엇인가가 논쟁의 초점이 되어야 한다”

이상훈 : 30여년동안 의원으로서 많은 역할을 해온 분이 바쁜 와중에도 노르망디에서 이곳까지 와 설명해준데 대해 매우 감사하다. 정부의 지방자치 관련 정책이나 진보정치세력의 관계문제 등 한국과 프랑스가 유사한 점이 많다. 선거연합과 관련해 간단히 설명해주셨다. 내년선거와 관련해 구체적으로 반신자유주의투쟁, 즉 사회공공성을 해치는 사흐코지정부에 어떻게 대응해나갈 것인지 묻고 싶다. 또한 선거연합에 있어 사회당과의 관계문제는 어떻게 토론되고 있는지 궁금하다.

바히에 : 현재 프랑스진보정치세력의 논쟁에 대한 본질적인 질문이다. 나에게 있어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명확하다. 선거동맹은 우익을 무찌르자, 이런 것이 아니다. 사흐코지도 한명의 사람이다. 사람에 대항해 싸우는 것 보다는 사흐코지의 정치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맞다. 즉 정책적인 부분이 선거 연합이나 동맹의 최대 기준으로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공산주의자들은 터무니없이 혼자다. 사회당, 녹색당, 반지본주의신당 등 어떤 형식으로 선거구도를 만들 것인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용적 측면이 중요하다. 즉 사람에게 반하는 정치에 반대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는 정치를 바꾸자고 이야기한다. 우리는 사흐코지만 반대해서 투쟁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무언가를 바꿔야 한다. 민중의 신뢰는 모든 좌파가 하나의 바탕 아래 정치적으로 하나가 될 때 얻을 수 있다고 본다.

대학에서 사흐코지를 무너뜨리기 위한 모임이 있었다. 거기서 사회당 당수 오브리히가 중도우파 프랑스민주연합(UDF)의 베이후와 동맹을 맺었다. 사흐코지의 정치에 반대하기 위해 동맹을 맺었다고 한다. 그런데 베이후는 오브리히와의 동맹은 가능하지만 공산주의자와의 동맹은 원치 않는다고 했다. 이런 것은 진정한 선거동맹이 아니다. 중요한 것은 그 속에 담긴 내용이다. 한명의 대통령, 한명의 사람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사회를 변화시키고 삶을 바꾸는 내용이 무엇인가가 논쟁의 초점이 되어야 한다.

지금 말한 대학에서의 모임이나 8월말에 있었던 논쟁을 보면 프랑스의 정치는 이미 새로운 시기에 접어들었다. 카드는 던져졌다. 정치동맹에 있어 하나의 필수적인 과제가 있다. 그것은 다음 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한 동맹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모든 좌파의 힘은 단결과 승리를 위한 날개를 찾음으로써 발휘된다. 이를 통해 우리의 힘이 살아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 일요일 튀마니떼축제에서 다시 토론하겠지만, 좌파 정당들은 자신이 할 일을 찾아야 한다. 현수막을 들고 시위만 할 것이 아니라 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해, 진보적 지역정치의 승리를 위해 할 일을 찾고 일을 해야 한다. 우리의 승리는 민중들이 새롭고 더 나은 삶을 살아가는 데 복무하기 때문이다.

공산주의자들은 스스로를 덮어 가두지 말아야 한다. 두가지 턱을 예로 들겠다. 어려운 상황이라고 해서 씹지 않고 그냥 소화시키는 턱이다. 다른 하나는 현수막을 들고 시위에 나가 싸우라고 말하는 턱이다. 소화시키기 위해서는 두가지 턱을 다 사용해서 싸워야 하고, 중요한 것은 투쟁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것이다.

박미진 : 지영철 민주노동당 충남도당 정책국장의 질문을 듣겠다.

“어떻게 민중들 속에 있지 않으면서 그들의 어려움을 알고,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알 수 있겠나.”

지영철 : 30여년 의정활동의 소중한 경험 잘 들었다. 정치활동에 대한 본질적 질문은 주민과 의원간 관계에 대해 던져지는 것이라는 말이 매우 인상적이다. 기간 의원활동을 하면서 주민참여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어떠한 방법으로 활동하셨는지 소개해주시면 감사하겠다.

바히에 : 주민참여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무엇을 어떻게 했는가는 질문을 들으니 스스로를 돌아보게 된다. 나는 지역의 사람들과 소통하는 것에 목말라있다. 내가 활동했던 선거구에는 2만명의 주민밖에 없었다. 그러나 학무모협회, 스포츠협회, 문화협회, 세입자협회 등 많은 협회가 있었다. 이런 협회를 통해 사람들이 필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자연스럽게 만나면서 주민들을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야 하는지에 대한 답을 찾았다.

운동가의 삶, 운동이라는 것은 사람들에게 나의 의견을 주장하는 것만이 아니다. 늘 사람들 안에서 소통하면서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는 것이다. 나는 르아브호의 화력발전소에서 일할 당시 지역 노동총동맹(CGT) 대표로 일한 동시에 르아브호지역 공산당책임자로 일했다. 나의 정치적인 방향은 운동을 시작할 때의 초심을 가지고 민중속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민중들 곁에서 그들의 이해와 요구를 듣고 그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조직하는 것이다. 어떻게 민중들 속에 있지 않으면서 그들의 어려움을 알고,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알 수 있겠나. 구체적으로 어떤 어려움에 처해있는지 알아야만 필요한 도움을 줄 수 있다.

지방의원으로서 도와줄 수 있는 위치에 있을 때는 더욱 그래야만 한다. 도와주는 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지지를 조직하고, 그들 스스로 역할을 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의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에 대한 존

중이다. 사람과의 약속, 그들의 지지와 믿음에 대한 존중이다. 그럴 때만이 민중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

운동가가 된다는 것은 항상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위치가 되어야 한다. 그들의 요구에 따라 창조적으로 사업할 수 있는 준비가 돼있어야 한다. 민중의 말을 경청하고 그들을 존중하는 마음의 준비가 돼있어야 한다. 그럴 때만이 민중과 함께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두마디만 하겠다. 나는 'NO'라고 말할 줄 모르고, 어떤 문제가 닥치면 먼저 방법을 찾으려고 한다. 이것은 알레자도 마찬가지다. (웃음)

박미진 : 활동가의 자세에 대해 강조하셨다. 매우 인상적이다. 다음 질문 듣겠다.

“주민과 정치활동가 사이의 신뢰가 투표조직에 중요한 작용을 한다”

김장민 : 훌륭한 설명에 감사드립니다. 프랑스의 지방선거제도에 대해 질문하고 싶다. 한국에서는 유권자가 두 개의 투표지를 받고 하나는 개인, 다른 하나는 정당에 투표하는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프랑스에서는 코뮌(시)과 헤지옹(광역도)에서는 정당에 투표를 하고 데쁘뜨명(도)에서는 개인에게 투표한다고 알고 있다. 정당에 투표하는 구역에서는 100% 정당명부제인지, 개인에 대한 투표가 없는지 궁금하다. 그렇다면 1인2표의 경우와 정당에게만 1표하는 경우를 비교할 때 어떤 제도가 공산당의 의석진출에 유리한지 궁금하다.

바히에 : 먼저 어떤 방식의 선거제도가 유리한지에 대해서 좀 다르게 설명하겠다.

데쁘뜨명선거의 경우 공산당 후보가 지위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그러나 정당후보명부에 투표하던 개인후보에 투표하던 유권자들은 그 후보가 지향하는 가치에 근거해 판단한다.

내가 의원으로 있던 지역에서 대선을 치렀을 때 60%에 이르는 기권자가 있었다. 반면 유럽연합헌법제정에 대한 투표가 있었을 때 76%의 투표율을 보였다. 투표결과 63%가 신자유주의적인 유럽연합헌법에 대해 “NO”고 답했다. 이 대답의 바탕에는 공산주의자들이 “아니다”라고 말했던 것이 있다. 이런 정치적인 사실을 놓고 볼 때, 주민과 정치활동가 사이의 신뢰가 투표조직에 중요한 작용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대통령선거에서 공산당후보의 입지는 매우 협소하다. 미디어에서는 크게 떠들지만 사실 우리는 다른 세상에 존재한다. 선거 때 사회보장제도, 공공서비스 강화 등 국민의 신임을 받을 수 있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쳐야 한다. 당시 체육부장관이었던 뷔페가 공산당 대통령후보로 출마했었다. 이 때 당선되지 못한 것은 신뢰의 문제가 아니라 공산당을 대표해서 내놓은 정책적 내용들이 국민의 눈에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현재의 준비상태를 감안해서 국가적 차원에서 보면 공산주의자들과 그들의 계획은 사람들의 눈에 쉽게 읽혀지지 않는다.

투표제도와 관련해서는 코뮌과 헤지옹에서 정당에 투표한다는 것을 각 정당마다 작성한 후보명부에 투표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된다. 이때 후보자들이 서로 계획과 정책을 공유하는 것이 중요하다.

박미진 : 30년동안의 활동경험을 압축적으로 설명했다. 깊은 감사의 마음을 담아 박수로서 마치도록 하겠다.
<끝>